

# 냉전과 소련의 핵실험(1949), 원폭 피해 서사의 번역

-나카이 다카시 『長崎의 鐘』과 존 허시 『廣島』-

이행선\*

## 〈차 례〉

1. 들어가며 : 냉전과 소련의 핵실험
2. 미국의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의사, 일본인, 가톨릭 신자’로서의 나카이 다카시와 『長崎의 鐘』
3.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가해국 저널리스트 존 허시의 『廣島』
4. 나가며 : 원자(핵)전쟁, 원폭 피해자의 존재

## 【국문초록】

1949년 한국에 나카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과 존 허시의 『廣島』가 번역 출간되었다. 나카이의 책은 8월 1일 『長崎의 鐘』으로 번역되었고, 존 허시의 책은 11월 3일 『廣島』로 출간되었다. 두 책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참상을 다룬 원폭기록집이다. 두 텍스트가 번역된 1949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고 소련은 원자폭탄 개발 실험에 성공했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한국에서도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고 반북정서와 증오정치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국면에서 소련의 원자탄 개발은 제3차 세계대전과 원자(핵)전쟁의 우려와 공포를 현실화했다. 요컨대 본고는 냉전 초기, 대표적인 두 원폭 피해 기록집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와 서사효과를 구명(究明)하고자 했다.

[주제어] 냉전, 원자폭탄, 나가사키의 종, 베스트셀러, 히로시마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1. 들어가며 : 냉전과 소련의 핵실험

1949년 한국에 나가이 다카시(永井隆, 1908.2.3.~1951.5.1)의 『長崎の鐘』(1949)과 존 허시(John Hersey, 1914~1993)의 『Hiroshima』(1946)가 번역 출간되었다.<sup>1)</sup> 나가이 다카시의 책은 1949년 8월 1일 『長崎의 鐘』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존 허시의 것은 1949년 11월 3일 『廣島 : 히로시마』로 출간되었다. 두 책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참상을 기록한 원폭기록집에 해당한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70만 명(히로시마 42만, 나가사키 28만)이 피해를 입었다. 그중 10%인 7만여 명(히로시마 5만, 나가사키 2만)이 조선인이었다. 조선인 피폭자 중 사망자는 4만여 명(히로시마 3만, 나가사키 1만)이었고 생존자는 3만여 명이었다. 이 중에서 2만 3천여 명(히로시마 1만 5천, 나가사키 8천)이 1946년을 전후로 귀국했다. 북한으로 간 피폭자는 2천여 명이었다. 일본에 잔류한 피폭자는 7천여 명(히로시마 5천, 나가사키 2천)이었다.<sup>2)</sup>

『나가사키의 종』을 쓴 나가이 다카시는 나가사키에서 직접 원폭을 경험한 피폭자였다. 나가이는 방사선의학의 개척자로서 1940년 나가사키의대 조교수(방사선학)가 됐고 1944년 이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나가사키대학병원에서 결핵 등을 퇴치하기 위해 분투하지만 변변한 보호장비도 없이 X-레이를 찍다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1945년 6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이미 방사선 피폭을 당한 상황에서 그는 동년 8월 9일 나가사키시 마쓰야마 지역 5백 미터 상공에서 작렬한 원자폭탄으로 머리 오른쪽 동맥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나가사키의대의 의료 체계와 장비는 파괴됐다. 나가이는 백혈병, 피폭과 피를 흘리는 증상을 입은 몸으로 제11구

1) 나가이 다카시 『長崎の鐘』의 한국 번역본(1949)은 일본 텍스트에서 부록 『마닐라의 비극』을 삭제하고 원문에 『역자 부기』를 추가 했다. 존 허시 Hiroshima의 한국 번역본에서 최덕일 번역본 『히로시마』(1949)는 텍스트 원문만 실렸고, 김중건의 번역본 『廣島』(1949)에는 『역자의 말』이 추가되어 있다.

2)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문제연구소, 2014, 334쪽.

호대를 꾸려 피폭자 치료와 구호 활동에 나섰다. 구호대를 해산한 후, 그는 폐허가 된 폭심지 우라카미(浦上)로 돌아가 움막을 짓고 살면서 원폭 증상을 연구했다. 나가는 병세가 악화되어 1946년 나가사키 역에서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고 1951년 5월 사망했다. 그는 일본에서 ‘원자별판의 성자’로 불린다.<sup>3)</sup> 『나가사키의 중』은 원래 1946년 8월 탈고되었는데 점령군 사령부의 발행금지 명령을 받아 미 국방성에 보내졌다. 점령군 사령부에서는 필리핀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을 기록한 『마닐라의 비극』을 부록으로 첨부한다는 조건으로<sup>4)</sup> 『나가사키의 중』의 출간을 허락하여 1949년 1월 일본에서 책이 간행될 수 있었다. 이후 점령이 해제되면서 『마닐라의 비극』은 제외되었다.<sup>5)</sup>

한편, 『히로시마』의 존 허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 중군기자였다. 1946년 미국의 주간지 『뉴욕커』가 ‘원폭 1년 후’ 특집 기사를 기획했을 때, 편집장 윌리엄 손이 상하이에서 중국 내전을 취재하고 있던 존 허시에게 전문을 보냈다. 대부분의 기사가 원자탄 자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히로시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쓰지 않고 있어서 히로시마의 8월 6일을 다뤄준다면 훌륭한 기획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의 내용이었다. 이에 존 허시는 1946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히로시마에 머무르며 사사키 양을 비롯해 목사, 독일인 신부, 의사 2명, 재봉사의 미망인 등 원폭 생존자 여섯 명의 삶을 추적했다. 그는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체험을 3만 1천 자로 담아냈고, 『뉴욕커』는 1946년 8월 31일자 전 지면에 광고, 기고, 논설, 그림 없이 존 허시의 기사만을 실었다. 잡지 역사상 가장 긴 기사였으며, 당일 30만부라는 판매 기록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1면 톱으로 『뉴욕커』의 과격적인 기사 게재 방식에 대해 썼고, ABC방송은 허시의 기사를 4개월간 방송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히로시마’라는 제목의 이 글을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3) 참고로 막시밀리안 콜베와 나가사키 피폭자의 신성화 문제에 대한 고찰은 임지현, 『병치 : 나가사키의 성자와 아우슈비츠의 성인』,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휴머니스트, 2021, 369~413쪽을 참조할 것.  
 4) 付 : 『マニラの悲劇』, 連合軍總司令部諜報課著(191~319면); 永井隆, 『長崎の鐘』, 東京 : 日比谷出版社, 1949.  
 5) 나가이 다카시, 김재일 역, 『그날, 나가사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섬, 2011, 7~9쪽.

한 가장 유명한 저널리즘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 글이 두 달 만에 책으로 출간되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90쪽짜리 책은 300만 부가 팔려 나갔다.

이와 같이 두 텍스트는 원폭과 관련해 당시 일본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다. 일본과 미국에서 출간된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1946년 8월 비슷한 시기에 탈고된 두 원폭 텍스트가 1949년 후반 한국에 번역되었다. 이 책이 출간된 즈음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소련의 베를린 봉쇄(1948.6.23.~1949.5.12)로 독일을 중심으로 소련과 서방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었다. 베를린 위기는 서방이 군사계획을 재검토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 미국은 영국에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배치했고 유럽은 미국에 북대서양 전체의 안보강화를 요청하여 1949년 4월 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조인식이 열리고 8월 효력이 발생했다. 서유럽 국가에게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목적은 소련을 막고 미국을 유럽에 붙들어 두며 독일을 억누르는 데 있었다. 1949년 5월 23일 서독, 동년 10월 7일 동독이 출범하였다.<sup>6)</sup>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1949년 8월 29일 드디어 원폭 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이 이를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9월 23일이었다. 충격을 받은 미 트루먼은 1950년 1월 31일 수소폭탄 개발 추진을 결정했다.<sup>7)</sup>

이러한 냉전의 확대는 동아시아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1949년 6월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은 소련, 기타 모든 나라의 무산계급과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함께 동맹을 맺어 국제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공표하여 스탈린을 국제공산주의의 수장으로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마오쩌둥은 트루먼이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을 발표한 1주일 뒤인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을 선포하고 12월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 결과 산출된 중·소조약에서 두 공산국가는 피습을 당할 경우 서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sup>8)</sup>

1948년 분단이 된 한국에서도 반소, 반북, 반공이 심화되어 유혈사태로 표

6) 토니 주트, 조행복 역, 『전후유럽 1945~2005』 1, 열린책들, 2019, 268~275쪽.

7) 金子敦郎, 『核と反核の70年』, リベルタ, 2015, 62~66쪽.

8) 존 루이스 개디스, 정철·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2010, 59~63쪽.

출되었다. 가령 제주4·3사건, 여순사건(1948.10.19), 문경석달사건<sup>9)</sup> 등 학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국가보도연맹 결성, 반민특위 해체가 이루어졌다. 1948년 12월 반공을 법제화한 국가보안법이 출현하고 1949년 4월에는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달에 좌익계열자 명부를 만들었다. 분단에 이은 이념과 체제 경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국가정체성의 확립은 중요했고 체제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불온사상은 적대시되었다. 그리고 그 담지자를 소탕했던 군과 경찰, 특히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이거나 친일경찰 출신의 과잉충성이 제도화된 폭력의 일부분을 구성했다. 반공과 애국심은 남한 사회의 새로운 지도이념이자 신념으로 정립되었고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화 되었다. 게다가 1949년 6월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을 받고 해체의 수순을 밟은 것처럼, 국가 수립과정에서 권력과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당대 상황도 학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살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미 자행되고 있었다.<sup>10)</sup> 또한 이승만은 1949년 2월 북진통일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동년 9월 30일 대중 앞에서 북진통일을 공언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49년 한국에 『나가사키의 중』과 『히로시마』가 번역되어 읽힐 무렵, 소련은 최초의 핵무기인 JOE-1 실험을 성공했고 중국은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을 승인했다. 한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고 반북정서와 증오정치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국면에서 소련의 원자탄 개발은 제3차 세계대전과 원자(핵)전쟁의 우려와 공포를 현실화했다. 사실 소련의 원자탄 보유설은 1946년 6월 14일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물질을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관리하에 두는 바

9) 문경석달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오전 11시경 국군 제3사단 제25연대 제3대대 제7중대 제2소대와 3소대 소속 군인 70~80여 명이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달동 지역주민에게 인민유격대와 내통한 혐의를 씌워 무차별 총격을 가해 86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학살이었다.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334쪽.

10) 이행선, 「단정기, '스파이 정치'와 반공주의-학살의 前史」, 『대동문화연구』 9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6.30., 149~180쪽.

루크 플랜(Baruch Plan)을 제안했을 때<sup>11)</sup> 이미 제기된 바 있고 1949년 접어들면서부터는 한국에서도 더욱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었다.<sup>12)</sup>

이런 국내외 정치 상황 속에서 번역된 나가이 다카시의 『나가사키의 종』은 1949년 8월 출간 이래 9월 10일 재판을 발행했고 12월 30일 5판을 찍었으며 1950년 1월 20일 6판에 이어 한국전쟁 전 7판까지 간행됐다. 또한 존 허시의 『히로시마』는 경위사(經緯社)와 정음사(正音社)에서 각각 출간했다. 그 중 『나가사키의 종』은 이 무렵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의 『내가 넘은 三八線』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된다. 존 허시의 취재기보다 일본인 나가이 다카시의 글이 한국 대중의 관심을 더 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번역 당시의 원자폭탄에 대한 국내외적 정치지형과 함께 그 이전 해방 이후 원자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원자폭탄은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가져온 ‘해방의 무기’<sup>13)</sup>로서 “일본으로 하여금 ‘인류 전멸의 위기’를 두려워하여 무조건 항복을 수습케 하였고 아름다운 우리 땅으로부터 왜인의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게 한 위력의 신병기”<sup>14)</sup>였다. 『조선 동포에게 고함』(1945)의 저자는 2차 세계대전이 좀 더 지속되었다면 북은 소련의 폭격으로, 남은 영·미의 폭격으로 전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말았을 거라고 하면서 “과괴적인 원자폭탄은 조선 동포에게 많은 적덕(積德)을 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sup>15)</sup> 이와 같이 원자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줄이고 종전을 촉진시켰으며 식민지 조선을 해방시킨 전쟁무기였다. 또한 그것은 조선에 주둔한 승전국 미국의 과학기술과 국력을 상징하는 최첨단 무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제기

11) 정육식·강정민, 『핵무기』, 열린길, 2008, 246쪽.

12) 「다음原子彈은 蘇聯에선가?」, 『조선일보』, 1949.1.15, 1쪽; 「蘇의原子彈 保有說에」, 『조선일보』, 1949.9.26, 1쪽.

13) 여기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은 이필렬, 『한반도에서 원자력이 지닌 해방자-구원자 이미지와 그 결과들』, 『동방학지』 166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4, 23~45쪽 참조.

14) 쯔나탄·킬본, 小愚生 역, 『원자폭탄의 정체』, 『민성』 1권 1호, 1945, 6쪽; 쯔나탄·킬본의 「原子彈의 原理」은 『신천지』 제1권 제1호(1946.02)에 실리기도 했다.

15) 月秋山人 편, 『조선 동포에게 고함: 자주독립과 우리의 진로』, 조광사, 1945, 39~43쪽.

면서 1946년 후반 “미국서 가져오는 식료품 중에 원자폭탄원료를 넣어가지고 와서 조선서 원자탄을 제조”<sup>16)</sup>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1948년 2월 『신천지』에는 「원자보다 더 무서운 절대무기」(엘레스 M 사차리아스)가 실렸고, 동년 10월에는 「원자력의 신방향」(데빗 리리엔탈)이 실렸으며, 동년 11·12월 합병호에는 제3차 UN총회에서 원자력 문제와 군축(軍縮)문제를 토의한 글이 기획기사로 꾸며졌다. 또한 이듬해 1949년 5·6월호 「원자력 실험 수행기」(테비드 부랴드레이)와 1950년 1월 「특집 : 원자력 문제」에서 미·소의 원자력과 평화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이처럼 해방 직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해방의 무기’이자 현대과학기술을 상징하던 원자폭탄이 냉전의 초기적 진행 속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공포 앞에서 ‘인류 절멸의 무기’로서 인식이 바뀌고 반전 평화의 문제의식과 결부되고 있었다.<sup>17)</sup>

요컨대 본고는 냉전 초기, 대표적인 두 원폭 피해 기록집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와 서사효과를 구명(究明)하고자 했다. 중요한 점은 두 저자의 사회적 위치가 각각 원폭 피해국과 가해국에 속하기 때문에 본고는 ‘저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원폭 서사의 구성과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해당 원폭기록집이 갖는 의미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서사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16) 「공보부장, 미곡수집상황과 지방시찰경과 발표」, 『서울신문』, 1946.11.22.

17) 해방기 원자(폭)탄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논의는 공임순,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 종전과 전후, 한반도 해방(자유)의 조건들」, 『서강인문논총』 제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8, 5~43쪽; 공임순, 「원자탄과 스파이, 전후 세계상의 두 표상: 보이지 않는 중심과 관리(통제)되는 양심/내면의 지도」, 『민족문화사연구』 48권 0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42~277쪽; 권보드래, 「과학의 영도(零度), 원자탄과 전쟁 : 「원형의 전설」과 「시대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3호, 2012, 327~363쪽 등을 참조.

## 2. 미국의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의사, 일본인, 가톨릭 신자’로서의 나가이 다카시와 『長崎의 鐘』

원자폭탄은 나가사키보다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졌지만 한국에서는 존 허시의 『히로시마』보다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이 먼저 번역되면서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정보가 먼저 알려졌다. 원폭이 일본에 투하된 이후 일본의 피폭자들은 1952년 8월 10일이 되어서야 히로시마에서 최초의 피폭자 조직인 ‘원폭피해자회’를 발족했다. 한국에서는 재한 원폭 피해자들이 1967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의 법원등기를 완료했다.<sup>18)</sup> 이런 맥락에서 1949년 두 원폭 텍스트가 한국에 번역될 때 재한 원폭 피해자를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의 원폭 텍스트의 번역은 한국인에게 식민지 조선을 해방시킨 원자폭탄과 일본의 전시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한 원폭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당한 원폭 피해 경험을 객관화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다수의 재한 원폭 피해자가 자신의 방사능 피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번역출판은 그들에게 원자병을 인식케 하는 가치를 확보했다. 또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환기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에 먼저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독자는 번역서의 서문을 통해 이 책의 출판과정과 일본인이 보는 책의 가치, 저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서문에는 이 책의 일본 출간을 도와준 시키마 류자부로(武場隆三郎)의 학박사가 쓴 「永井博士를 爲하여」가 있다. 시키마에 따르면 원래 이 글의 제목은 ‘원자시대의 개막’이었는데, “원자 문제는 세계의 중대사인데 전쟁 책임자인 일본인이 이에 관하여 운위하는 것은 삼가야할 성질의 것”<sup>19)</sup>이어서 출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1946년 8월 탈고된 원고가 1948년 말에서야

1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98쪽, 112쪽.

19) 永井隆 著, 李承澤 譯, 『長崎의 鐘 : 原子彈에 맞고서』,三一出版社, 1949.8, 2쪽.



연합군의 허락을 받아 1949년 1월 출간될 수 있었다. 시키바 박사는 “쫀 허 어씨 씨의 『히로시마』는 원자폭탄 최초의 기록문학으로서 전세계에 독자를 얻은 명저이다. 그러나 永井씨의 『長崎의 鐘』은 일본인의 입장으로 쓴 최초의 것으로 『히로시마』와 더불어 불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永井씨의 기록은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체험기로서 전 세계 인류의 주목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후세에 남을 명저”라고 평가했다.<sup>20)</sup> 미국에서 먼저 출간된 『히로시마』의 저자 존 허시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長崎의 鐘』은 ‘일본인’이 쓴 원폭체험기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시키바 박사는 저자의 약력을 소개하여 나가이가 1944년 39세에 의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본래 방사선의 연구와 치료에 종사하며 원자병에 걸려 있었으나 원자폭탄의 폭발로 중증이 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으며 1945년에 교수가 되었으나 교단에 설 수 없어서 1948년에 휴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독자는 저자가 직접 쓴 『自序』에서 저자의 집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령 나가이 다카시는 “원자탄에 관하여 누구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장소에서 마침 목격하였으므로 본바 들은바 조사한바 느낀 바를 솔직히 그대로 보고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원자폭탄의 실상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증오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에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여 점령군으로부터 『마닐라의 기록』을 얻어서 합본을 하여 내게 된 것을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sup>21)</sup>라고 했다. 『마닐라의 비극』은 마닐라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만행을 폭로한 전범 재판 기록이다. 일본의 잘못을 드러내는 글이 자신의 글과 묶여 합본으로 출간되었는데도 나가이는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는 전범기록이 원폭 피해 기록과 함께 ‘반전과 평화’ 의식을 각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가이는 글

20) 위의 책, 2~3쪽.

21) 위의 책, 5쪽, 7쪽.

의 제목을 ‘원자시대의 개막’에서 ‘長崎의 鐘’으로 바꿨다. ‘長崎의 鐘’은 나가사키 가톨릭 우라카미 성당에 실제로 달려 있던 종이다. 나가이는 “이 책의 제명이 된 우라카미(浦上) 천주당의 종은 저 크리스마스 날 벽돌 무너진 속에서 파내어 임시로 달아매고 쳐 오다가 만 3년 된 오늘날 비로소 농루를 짓고 이번 크리스마스부터는 드높은 곳에서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종은 하루라도 빠짐없이 우주의 마지막 날까지 울려주기를 빌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sup>22)</sup>라고 했다. ‘長崎의 鐘’은 평화가 전 인류에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나가이의 바람이었던 것이다.

의사 나가이의 책은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첨가되기 때문에 당시 한국인 의사에 의해 번역되었다. 번역자인 남대문지성(至誠)병원 의사 이승택은 『長崎의 鐘』이 일본인의 심금을 울려 번역 도중에 일본에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연극으로도 상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당시 死者 3만, 부상자 4만이라 하였다. 이 부상자 4만은 4년 후 현재 99%가 사망하고 永井 박사가 최후의 1% 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자기의 혈액상을 그리고 있다. 후세의 연구를 위하여 유서적 기록을 했다”<sup>23)</sup>는 설명으로 번역서의 위상과 피해상황에 대한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의사의 번역이기 때문에 독자는 신뢰를 갖고 일본의 원폭 피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책광고) 전쟁과 평화문제는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수많은 책자가 나왔으나 이 책 외에는 인류의 더 큰 감명과 심각한 문제에 이끌어준 책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 책자가 나타난 지 20일이 못되어 절판을 보게 되어 조선출판계에 최고기록을 돌파했던 것도 오로지 이 책의 진가의 표현이다! 이 책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고귀한 선물로써 우리의 생활상 또는 세계평화상에 한 철학을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니만큼 원자만능시대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로서는 이 어찌 무관심하여! 장래 대과학자를 지향하고 나가는 청년학도는 물론 현대인으로서의 서재에 이 책이 꼬쳐 있지 않으면

22) 위의 책, 8쪽.

23) 위의 책, 10쪽.

시대에 뒤진 감이 없지 않다고까지 각 대학생, 斯界명사, 특히 교육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명저이다! 원자탄폭발당시 방사선을 연구하던 日과학자의 생생한 수기로써 세계최초의 원자폭탄체험기! 이 책을 국어로 번역도중에 온 일본 신문을 보면 금년에 들어 이 책이 베스트세일러가 되었고 영, 독, 불, 譯등으로 소개가 되었다! 저자는 그가 생명한 원자병에 걸려 原子野에서 신음하며 최후 순간까지 자기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원자병의 출현과 療法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역자 역시 醫學徒로서 이에 대한 연구 소양이 깊으므로 번역에 더욱 빛남이 있는 명저이다!<sup>24)</sup>

한국 독자는 소개자와 저자, 번역자의 글, 광고 등을 통해 ‘의사, 일본인,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을 지닌 나가이 다카시가 『長崎의 鐘』을 구성했으며 본인도 피폭자로서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의 제목이 반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가톨릭의 종소리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당시 미국에 이어 소련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핵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폭 피해 기록을 다룬 책의 번역은 시의적절 했다. 그래서 광고에서도 전쟁과 평화를 강조하며 이 책을 “제2차 세계대전의 고귀한 선물”이라고 고평했다. 또한 광고는 의학도에 의한 세계최초의 원자폭탄체험기로서 원자병의 출현과 요법 등에 관한 기록을 강조했다. 나가이의 책은 원자폭탄과 원자병이 궁극한 독자나 원폭피해를 입은 재한 피폭자의 자기 병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용성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피폭자를 위한 전문병원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본격화된 재한 원폭 피해자 구술자료를 참고해보면, 당시 피폭자들은 자신이 겪는 병이 원폭후유증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sup>25)</sup> 다시 말해 의학자가 쓴 『長崎의 鐘』의 한국 번역 출간은

24) 『永井隆著・李承澤譯 드디어再版出現!』, 『조선일보』, 1949.9.20, 2쪽.

25) 여기에 대해서는 정근식 편, 진주 채록, 『고통의 역사-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0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내 몸에 새겨진 8월-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참조.

원폭의 사회화와 지식 보급, 제3차 세계대전 반대 등 반전 및 평화의식 강화에 일조했다.

한국 독자가 접한 원폭지식은 피폭자 나가이 다카시가 ‘의사, 일본인, 가톨릭 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가사키 원폭체험이다. 원폭하면 히로시마가 많이 운위되는데 나가이의 책은 그러한 선입견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나가이 다카시가 ‘의사, 일본인, 가톨릭 신자’의 입장에서 구성한 『長崎의 鐘』이 한국 독자에게 어떠한 원자탄의 참상을 전하고 서사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가이 다카시의 세 정체성 중 먼저 ‘의사’의 관점으로 『長崎의 鐘』을 재구성해 보면, 『長崎의 鐘』의 첫 장면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1945년 8월 9일 오전 우라카미에 있는 나가사키의과대학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원자폭탄은 오전 11시 2분에 폭발했다. 이 책은 폭발 직전부터 원고가 타고된 1946년 8월까지가 서사적 배경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945년 10월까지이고 11~12월은 극히 일부 포함된다. 주된 서사의 시간적 배경이 1945년 8월 9일부터 10월까지 대략 3개월이다. 나가사키의과대학은 오전 8시 수업이 시작되고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으러 와 있었기 때문에 11시 2분 폭발 당시 피해가 막대했다. 나가사키의과대학은 원자폭탄 파열점에서 불과 3백~7백m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기초의학과 목조건물이 모조리 무너져 내려 교수와 대학생이 모두 사망했고 콘크리트로 된 임상 의학과 건물 일부에서만 생존자가 나왔다. 나가이 다카시는 당시 부장 교수로서 병원본관 외래진료실 2층 연구실에서 피폭을 당해 무너진 잔해더미에 깔렸다. 나가이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왼쪽 이마 관자놀이 동맥이 끊어져 피가 쏟아져 나오고 다리를 다쳤다. 피폭 20분만에 우라카미 일대가 불바다가 되고 있었다.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구한 의사와 의대생, 간호사 20여 명이 부상자를 뒷산으로 피신시켰다. 오후 2시가 되자 화재의 화염이 절정에 달했고 4시 즈음 그 유명한 ‘검은 비’가 내려 기름찌꺼기 자국을 남겼다. 오후 5시 무렵 나가사키의과대학 건물은 잿더미가 되었다. 나가이 다카시는 뒷산 감자밭으로 갔다가 출혈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불길은 한밤중에야 잦아들기 시작했다.

다음날 8월 10일 아침 의료진은 전날 밤 미군이 뿌린 뼈라를 통해 원자폭탄이 투하된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 경방단(警防團), 오무라(大村) 해군병원, 구루메(久留米) 육군병원, 시청 위생과 직원 등과 함께 8월 11일까지 시체를 묻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환자를 육군병원으로 모두 옮기는 작업을 했다. 이후 나가이 다카시는 미쓰야마(三山) 구호반을 편성해 8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로쿠마이이타(三山板) 온천이 있는 미쓰야마 계곡에 가서 주변 일대 피폭자 치료에 나선다. 구호반은 고바(木場) 마을의 후지오(藤尾)라는 곳에서 집한 채 빌려 구호반 본부를 꾸리고 주변 9km 내 지역까지 날마다 순회 진료를 했다. 구호반도 모두 피폭을 당하고 파편 등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산간지역의 순회 치료는 강행군이었다. 나가이 다카시는 병세가 위독해져 9월 20일 혼절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나가이는 10월 8일 구호반을 해산하고 우라카미에서 방사능 피폭을 안 입은 사람이 폭심지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폭심지인 우이노마치에 가서 움막을 짓고 1년 넘게 생활을 하며 사람과 자연을 관찰했다. 『長崎의 鐘』은 이 움막에서 탈고된 것이고 공간적 배경은 우라카미의 나가사키의과대학, 미쓰야마 계곡, 폭심지 우이노마치로 제한된다. 8월 9일부터 12월(좁게는 10월)까지 피폭 이후 행적을 접한 독자는 나가이 다카시와 의료진이 방사능 피폭과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나가이는 의료진의 연대감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와 같은 피폭 이후 일련의 기록은 한국 독자에게 대량살상무기인 원자폭탄의 위력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의료진의 피해 수습과 피폭 경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중에서도 원자폭탄의 위력이 궁금한 한국인이나 재한 원폭 피해자에게 더욱 실제적인 궁금증은 원폭이 유발한 병이다. 당시 원자폭탄이 낮은 한국 독자나 자신이 방사능 피폭을 당한지도 잘 몰랐던 재한 원폭 피해자에게 방사능 피폭에 의한 원자병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다시 말해 이 책은 원자병의 존재와 실체를 몰랐던 한국 독자에게 지식 전달의 기능을 했다. 당시 피폭 순간의 처참한 참상을 형상화한 원폭문학과 달리 나가이의 책은 끔찍한 환자

의 증상 재현 대신 의학도로서 그 증세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독자에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가이 다카시는 원폭 이전에 방사선 실험을 일부분 수행한 의학도이자 자신이 피폭자였기 때문에 그의 분석은 동료 의학과 일반 독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나가이는 1945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가 조직한 제11구호대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원자폭탄 구호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sup>26)</sup> 『長崎의 鐘』은 일반 독자를 위한 대중서인 셈이다.

나가이 다카시와 동료 의료진은 사망자를 처리하고 많은 부상자를 진료하며 토론을 통해 원자폭탄 상처에 관한 고찰을 차차 종합 할 수 있었다. 그 기록을 재구성해보면, 원폭에 의한 직접 상해는 폭압(暴壓), 열상, 감마선·중성자 피폭, 폭탄 파편(불덩이)에 의한 것이고, 간접 상해는 도피가옥, 비산물 조각(유리, 나무 등), 화재, 충격으로 인한 정신이상 등이 있다.<sup>27)</sup> 이 중에서 일반 폭탄과 원자폭탄의 두드러진 차이는 첫째, 강력한 압력과 열상에 의해 화상 입은 피부 가죽이 너덜너덜 벗겨지거나 붉은 흉터 자국인 켈로이드가 생기는 현상이다. 둘째,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방사능 후유증, 원자병이 발병한다. 원폭 초기 나가이와 의료진은 유독가스를 마신 듯 속이 느껴지고 구토가 일었으며 쓰러질 듯 기운이 없었다. 상처 하나 없는 사람도 같은 증상이었다. 술 마신 다음날처럼 숙취 같은 불쾌감, 뱃멀미 같은 증상이 있었다. 전신권태감, 두통, 구역, 현기증, 탈진, 오심이 혼합되어 나타났다.<sup>28)</sup> 나가이는 원자탄 폭발 이전에 방사선 실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감마선 중독 증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다만 그 역시 감마선보다 더 위험하다는 중성자의 영향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상자와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해야 했다.

나가이와 의료진은 진료 환자를 통해서 심각한 방사선 중독 증상이 소화기관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sup>29)</sup> 또한 8월 9일 원자탄이 폭발한

26) 나가이 다카시, 김재일 역, 『그날, 나가사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썬, 2011, 147쪽.

27) 永井隆 著, 李承澤 譯, 『長崎의 鐘 : 原子彈에 맞고서』,三一出版社, 1949.8, 84~85쪽.

28) 위의 책, 82~83쪽.

29) 위의 책, 96쪽.

이래 연합군이 상륙한 18일 무렵부터 무시무시한 원자병 증상이 부상자와 의료진, 건강한 피난민에게 다발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시(施) 교수는 백혈구 수치가 절반 이상 감소했고, 간호부장은 머리카락이 빠졌으며, 구호대원들은 피로와 과로, 영양부족, 원자병으로 연이어 쓰러졌다. 9월 들어 나가사키의 혼란은 진정 국면에 들었는데 폭발 4주째 되는 9월 5일부터 폭발 1km 이내 지역에서 갑자기 사망자가 속출하고 심각한 백혈구 이상, 40도 이상 고열, 피부 창백 등의 원자병이 나타나 상황이 심각해졌다. 또한 폭발 반경 2~7km 이내 초목이 타버리고 검은 비를 맞은 풀이 말라버렸다. 나가이 다카시는 9월 20일 절망적일 만큼 위독해져 혼수상태에 빠졌다.<sup>30)</sup> 1주일여 만에 간신히 정신이 든 나가이는 마쓰야마 구호반 해산 이후 피폭을 안 입은 사람이 폭심지에서 살 경우 방사능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폭심지 우에노마치(폭발지점에서 6백m)로 가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지역민을 살폈다. 그 결과 피폭 후 3주 이내 거주를 시작한 사람은 숙취증상이 1달 지속되었고 심한 설사로 고생을 했다. 그중에서도 무너진 집과 재를 정리하고 시신수습에 가담한 사람은 특히 증상이 심했다. 1달 이후 거주를 시작한 사람은 숙취와 소화기 장애 등이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다. 3개월 후부터는 뚜렷한 장애가 없었다. 미량의 방사선에 장기노출 되어 한 달 지나 백혈구 수치가 2배 증가했지만 방사능 감소 속도가 빨랐다. 피난민, 군복귀자 등이 다시 집을 짓고 거주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원폭 때문에 75년 동안 나가사키에 살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나가이는 3개월이 지나면 괜찮은 것으로 인식했다. 이와 같은 나가이의 기록을 통해 방사능 피폭 생존자는 8월 18일 1차 위기, 9월 5일 2차 위기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

미국 (핵개발) 맨해튼 프로젝트(1942)에 참여한 과학자를 통해 “치명적인 방사능 여파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며 “폭발 당시의 피해를 면한 잔존자들의 삼대 사대 후손의 대부분 기형이나 불구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한국에도 전해졌지만<sup>31)</sup> 방사능 피해의 구체적 실체는 알지 못하는 상

30) 위의 책, 106~107쪽, 113~114쪽.

31) 『原子彈五百箇면 全世界人類死滅!』, 『동아일보』, 1947.5.31, 1면.

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폭 직후의 구체적인 병증과 변화를 기록한 나가이의 책은 한국에 원폭의 방사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나가이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원자병 연구는 원폭 피해자의 증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병 중 일부는 잠복기가 있어서 수년 후에 발현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반인이 얻는 병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폭 이후 시간이 지나면 원자병과 일반병의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원폭피해자 자격 인정이나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고 원폭2·3세의 유전병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증상 기록이 원폭 피해자 구분과 치료의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책의 번역은 ‘생존하여 해방된 조선으로 귀국한 재한 원폭 피해자’도 나가이의 기록에 비취 자신의 피폭체험과 병증을 가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병의 치료 문제였다. 『長崎의 鐘』의 원자병 증상 및 치료기록은 피폭자나 다른 원폭 의료진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원자병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원폭병원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폭자가 원자병 증상이나 치료법을 몰라서 한방이나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상황이었다. 가령 이 책에서 열상 흉터인 ‘켈로이드’는 긁거나 무턱대고 아무 연고를 바르는 것은 위험하고 목욕 후 수건으로 상처부위를 문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켈로이드는 수십 년 후 암이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중요 문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재한 피폭자는 가려운 켈로이드를 긁거나 문질러서 병증을 악화시켰다. 또한 이 책은 방사능 피폭자는 무리하여 피로해지는 것은 금물이고 잘 쉬어야 한다고 했다.<sup>32)</sup> 하지만 재한 피폭자는 대다수가 가난

32) 책에 따르면 소독약 외에 사실상 의료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열상을 입은 상처에 기름을 바른 환자의 상태는 다행히 좋았지만 감자를 갈아 붙이거나 호박, 점토를 덮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더 악화하고 경과가 좋지 않았다. 몇 달간 치료를 해본 결과 원자병 요법으로 첫 번째 ‘방사능 숙취’에는 비타민B, 포도당 주사가 효과가 좋았다. 두 번째 ‘화상’은 광천요법(24일 만에 회복)이 약물요법보다 평균 2주일 빠른 효과가 있었다. 광천욕은 외상에도 좋았다. 세 번째 9월초 골수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구 감소를 파악한 의료진이 9월 10일 최초로 ‘자가혈액요법’을 시행했다. 이는 환자의 혈액을 추출하여 다시 주사하는 것으로 빈사상태의 환자가 모두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나 만족스러



하여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 자신의 육체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피폭자는 힘을 못 쓰고 쉽게 피로해서 일터(논밭, 공장, 공사현장 등)에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배척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피폭자는 원인불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재산을 무작정 탕진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sup>33)</sup> 이러한 나가이의 기록은 미흡해보이지만 당시 의료진이 인류가 최초로 겪은 원자폭탄 피해 증상과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학적 지식으로서 귀중한 자료였다.

이와 같이 원폭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원폭서사 『長崎의 鐘』과 『廣島』는 새로운 ‘원자 시대’의 평화를 위한 반전(反戰) 텍스트가 될 수 있었다. 이미 원자탄 제조 경쟁으로 “만약 수백·수천 개의 원자탄이 전 세계의 도시에 투하된다면 지구상의 인류의 전 도시가 영원히 전멸할 것”<sup>34)</sup>이라는 류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長崎의 鐘』을 읽은 한국의 독자 현동염은 “일찌기 戰爭史上에 없는 이 原子彈의 大慘禍에 대한 生생한 記錄을 읽노라니 言語에 絶할만한 恐怖와 戰慄이 온몸을 싸고돈다.”는 감회를 밝히며 “今後 한번만 다시 ‘탕-’하고 原子爆彈이 터지는 날엔 급기야 인류는 滅亡을 招來하고 말 것이라는 先知者의 豫言이나 다름없는 示唆 깊은 글이었다.”고 말했다.<sup>35)</sup>

지금까지 ‘의사’로서의 나가이의 기록을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 ‘일본인’으로서의 나가이의 시선이 한국 독자에게 주는 서사효과를 분석해보자. 이 무렵 『내가 넘은 삼팔선』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패전 무렵 일본인의 대응과 인식은 당시 한국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수개월에 걸친 원폭 수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이에 일본이 8월 15일 패망을 했다. 서문에서 시

왔다. 네 번째 ‘환자식단’은 가축의 간, 채소, 술이 좋았다. 다섯 번째 구호소 요양보다 ‘자택 요양’이 훨씬 치료 효과가 있었다. 위의 책, 90쪽, 117~119쪽.

33) 피폭자가 일터에서 당한 고초와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날리는 등 피폭자가 피폭후유증과 치료 문제로 겪어야 했던 다양한 사연은 재한 원폭 피해자 구술집인 朴秀腹,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創元社, 1975을 참조할 것.

34) 필립 모리스, 『원자탄의 위력』, 『신천지』, 1946.11, 199쪽.

35) 현동염, 『長崎의 鐘』을 읽고, 『조선일보』, 1949.9.13, 2쪽.

키바 류자부로 의학박사가 존 허시의 『히로시마』와 달리 『長崎의 鐘』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쓴 원폭 체험기라고 지적인 것처럼, 『長崎의 鐘』에는 ‘일본인’으로서의 나가이의 인식이 드러난다.

한국 독자는 ‘제국’의 신민이었던 일본인 나가이와 대면하게 되었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한 일본인으로서의 나가이의 대응을 살펴보면, 먼저 8월 9일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나가이는 그것이 원폭인 줄 몰랐지만 미군이 또 다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가사키의대 뒷산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피신을 했다. 이날 오후 5시경 뒷산에서 의대가 잣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본 오쿠라 교수가 하얀 시트를 꺼내오자 나가이는 자신의 턱에 붙어 있는 핏덩어리를 떼어내 큰 일장기를 그린 후 나뭇가지에 묶어 세웠다.<sup>36)</sup> 나가이와 동료 의료진의 애국심과 민족애가 확인되는 부분이다. 다음날 10일 의료진은 원자폭탄에 대해 토론을 하며 일본 과학자도 개발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군부가 반대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부가 어리석은 자들이라며 일본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면서도 의료진은 원폭을 “과학의 발전”,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다.<sup>37)</sup>

또한 미쓰야마 계곡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8월 15일 대학본부에 식량보급을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 정오에 천황의 중대발표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가이는 설마 거짓말이겠지 하고 믿지 않았다. 다음날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 시내로 내려간 간호사가 “중전을 결단하다”라는 글이 실린 신문지를 가지고 왔다. 나가이는 신문을 보고 소리 내어 울었다.<sup>38)</sup> 그 다음날 17일 의료진은 패전에 충격을 받아 모두 아무것도 안하고 빈둥거렸고 의사를 데리러 사람이 찾아와도 진료를 못하겠다고 매정하게 거절해 버렸다. 하지만 나가이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며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36) 永井隆 著, 李承澤 譯, 『長崎의 鐘 : 原子彈에 맞고서』,三一出版社, 1949.8, 61쪽.

37) 위의 책, 76~80쪽.

38) 위의 책, 98~101쪽.

11월 초 우에노마치의 움막에 있을 때에는 전쟁터에서 귀환한 아마모토와 하마사토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복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나가이는 전시 중 자신은 의사로서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현재 아내가 죽고 집이 소실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며 후회 없는 전쟁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은 아니며 원폭이 터진 지옥의 모습을 보면 전쟁은 다시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조언했다. 나가이는 다시 전쟁을 하면 원자탄이 수없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sup>39)</sup>

이런 맥락에서 의사 나가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이 감행한 ‘성전(聖戰)’에 모든 힘을 다한 황국신민이었고 일본의 패전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릴 만큼 애국국민이었다. 그는 “원자폭탄으로 세상을 떠난 동료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의 패망에 “수치심”을 느꼈다.<sup>40)</sup> 또한 과학자로서 그는 일본의 원폭 개발을 지지했다. 그러면서도 내심은 ‘성전’이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나가이는 비대칭무기인 원자탄을 개발한 미국을 상대로 일본이 전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간주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에서 당시 한국 독자는 자신도 피폭자이면서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건 ‘의사 나가이’와 일본의 패망과 원폭 개발 좌절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일본인 나가이’의 간극을 묵도하게 되었다. 이는 원폭 피해자이자 전쟁의 패전국 국민으로서의 일본인 나가이의 면모였다.

세 번째로 『長崎の鐘』에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나가이의 의미를 분석해보자.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팻 맨’(Fat Man, 플루토늄)은 사망자 약 73,900명, 부상자 약 74,900명, 피해면적 6,702,300㎡, 약 12,900동 파괴라는 피해를 입혔다. 나가사키 지역민은 엄청난 재산 소실과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조국의 패망이라는 충격도 떠안아야 했다.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건에

39) 위의 책, 121~126쪽.

40) 위의 책, 105쪽.

힘쓰는 ‘가톨릭 신자’로서의 나가이의 면모에 주목해 보면, 나가이는 일차적으로 부상자를 위로하고 구해줄 사람은 의료진밖에 없다고 생각해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면서도 ‘폐허의 복원과 나가사키의 재건,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종교적으로 “신앙의 힘”<sup>41)</sup>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나가이는 1948년 3월부터 이웃과 가톨릭교회의 도움으로 지어진 ‘여기당(如己堂)’(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에서 살기도 했다. 그가 사망했을 때는 나가사키 명예시민장으로 우라카미 성당에서 장례가 치러졌다. 2만 명의 추모객이 참여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 했으며 나가사키의 모든 종교시설에서 종을 울려 조의를 표했다.<sup>42)</sup> 이처럼 가톨릭과 밀접한 나가이는 ‘우라카미 천주교당 합동장례식’에서 대표로 조사(弔辭)를 읽기도 했다. 우라카미 성당의 상공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하여 성당이 전소되었다.<sup>43)</sup> 가톨릭신자 8천여 명이 사망했다. 신도들이 폐허가 된 성당에서 희생자를 위한 위령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가이는 잿더미가 된 우라카미 성당이 성모님께 바쳐졌다며 인류에 대한 죄로 성당이 신의 제단에 올라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 희생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되찾고 일본인이 속죄와 배상의 길을 잘 건디어 나갈 것을 기원했다.<sup>44)</sup> 이 위령미사에서 울린 종소리의 종에는 ‘長崎의 鐘’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長崎의 鐘’ 소리는 평화의 종소리이자 산자와 죽은 자를 위로하는 성령의 울림이었다. 그는 성당의 새벽 종소리가 평화를 축복하며 울려 퍼진다고 했다.

나가이는 원자폭탄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절멸의 무기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출현한 이상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원자(력)의 시대”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가 원자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인류 문명을 비약

41) 위의 책, 137쪽.

42) 나가이 다카시, 김재일 역, 『그날, 나가사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섬, 2011, 207쪽.

43) 우라카미 성당은 1945년 당시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치참하게 파괴됐다. 시민들이 원폭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건물로 피폭 당시 모습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958년 철거되었다. 나가이 다카시, 박정임 역, 『나가사키의 종』, 페이지퍼드, 2021, 22쪽.

44) 永井隆 著, 李承澤 譯, 『長崎의 鐘 : 原子彈에 맞고서』,三一出版社, 1949.8, 129~133쪽.

적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악용하면 지구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아직 없는 시대였지만 그는 앞으로 원자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인류가 원자력을 획득해 인류 존망의 열쇠를 쥐게 되었는데 이 열쇠를 보관할 곳은 “참된 종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가이는 이제 인류가 전쟁을 그만두고 “사랑”으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며 성모 마리아께 기도드리고 『長崎의 鐘』을 마무리했다.<sup>45)</sup>

이와 같이 당시 한국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독실한 신앙심을 지닌 가톨릭 신자로서의 나기이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나가이가 종교를 통해 전쟁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를 통한 나가사키의 재건과 부흥의 국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독자에게 『長崎의 鐘』이 갖는 의미를 나기이의 세 가지 정체성 ‘의사, 일본인, 가톨릭 신자’의 맥락에서 조명했다. 나가이 다카시는 방사능 피폭을 입은 피폭자였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보살피는 순교도적 행동을 취했고 과학도로서 인류가 직면한 원폭 피해 증상을 연구하기 위해 진리 탐구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적십자정신을 발휘한 그 역시 황국신민으로서 조국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인’이었다. 나가이도 일본의 패전과 패망을 슬퍼하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원자폭탄이 개발된 이상 앞으로의 전쟁은 몰살, 자살과 다름없다고 인식했다. 독실한 가톨릭신자의 입장에서 그는 참혹한 전쟁을 지양하고 인류의 평화를 지향했다. 중국적으로 『長崎의 鐘』은 나가사키인의 원폭체험기로서 원자탄과 원자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반전과 평화를 바라는 원폭기록집이었다. 당대 제한 원폭 피해자에게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49년 후반 보통의 한국인의 입장에서 원자폭탄은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지만 냉전 시대에 적국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하면서 적국의 ‘살상 무기’로 그 의미가 바뀌어갔다. 『長崎의 鐘』은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독자에게 원자탄의 위험

45) 위의 책, 138~142쪽.

과 공포를 전해주는 역할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는 일반 독자의 핵실험 반대와 반전 의식 강화에 일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 3.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가해국 저널리스트 존 허시의 『廣島』

(광고) 대호평裡에 발매 중

존·허시 저, 金鍾健 역, 經緯社

원자탄의 세례 받은 히로시마 廣島

학생·종교가·의사·과학자들이여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원자탄의 위력과 그 실상을.<sup>46)</sup>

의사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에 이어 미국인 저널리스트 존 허시의 『廣島』가 한국에 번역되었다. 1946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일본에서는 1949년 4월 25일 최초 번역되었고<sup>47)</sup> 한국에서는 1946년 8월 31일 영어본이<sup>48)</sup> 1949년 11월 3일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에 번역되기 이전 허시의 『廣島』는 “原子彈의 破壞狀況을 屢次 筆致로 그린 優秀한 ‘르포르타주’<sup>49)</sup>로 알려졌다. 또한 1949년 8월 “원자탄투하 제4주년을 맞아 UN을 강화하여 평화보전의 능력을 가진 세계정부를 수립하는데 솔선진력하기를 트루먼 대통령에 요청하는 히로시마 시민의 진정서가 8월 6일 전해질 예정”<sup>50)</sup>이라는 존 허시의 논설도 한국에 전해졌다.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는 “일본의 주요 군대 수송기점이었고 다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sup>51)</sup> 핵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그리고 나가이 다

46) 『(광고)廣島』, 『동아일보』, 1949.11.18, 1쪽.

47) John Hersey, 石川欣一·谷本清 共譯, 『ヒロシマ』,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49.4.25.

48) John Hersey, Hiroshima, New York: A. A. Knopf, 1946.8.31.

49) 『知性の 貧困顯著』, 『경향신문』, 1948.9.5, 2쪽.

50) 『廣島市民이 特大統領에 情』, 『조선일보』, 1949.8.3, 1쪽.

카시의 『長崎の鐘』은 10월 31일 3쇄가 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 허시의 책이 經緯社와 正音社, 두 곳에서 번역 간행되어 한국 독자에게 소개되었다. 책광고는 학생, 종교가, 의사, 과학자에게 독서를 권장했으며 이 책을 읽으면 원자탄의 위력과 그 실상을 알 수 있다고 홍보했다. 원자폭탄의 위력에 대한 당대인의 관심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기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시 상공에 터지던 그 순간부터 그후 1년 동안의 경과보고로 전세계에 발표된 최초의 원자폭탄에 대한 내용공개 글이다. 미국시민들도 이 책으로서 비로소 그 위력을 알았고 각국 말로 번역되었다한다.

전편을 통하여 나오는 실마리의 주인공 여섯 사람들(처녀 여사무원, 삼남매를 가진 전쟁미망인, 의사 두 사람, 독일인 천주교 신부, 일본 감리교 목사)이 구사일생으로 이십세기 인공지옥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과 그들을 에워싸고 도는 이십여만 명이나 되는 사생방 환자들의 처참한 현지보고이다. 진실한 기록이므로 공상과 억측은 찾아볼 수 없는 파노라마적 지옥의 모사이다.

원자폭탄이 얼마만한 폭음과 열도로 천지를 파괴하였으며 또 그 영향이 인류에게는 물론 동물계와 식물계 기타 자연과학 방면에 어떠한 공세를 보여주었는가를 역연히 참고할 수가 있다.

살아나 활동할 수 있는 단 두 사람의 의사가 천신만고로 이죽 것 알지 못하던 의학적 재료와 임상보고는 소위 원자병의 발생, 진행 및 그 결과를 세밀히 보고하였고 전기 신부와 목사는 자기들의 굳은 신앙으로써 무자비한 현실과 싸우면서 종교적으로 헌신하며 이탈하는 교인들이 「하느님이 그렇게도 착하시다면 이런 생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는 원망 속에서 무수한 인명을 구제한 나머지 생시간에서 방황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하였으나 원자병에 걸려 몇 차례를 사선에서 방황하면서도 전도에 힘쓴 그 고결한 종교인의 실천은 감명할 바가 크다.<sup>52)</sup>

51) 『廣島原爆에』, 『조선일보』, 1949.8.30., 조간 1쪽.

52) 존 허-시 저, 金鍾健 譯, 『廣島』, 經緯社, 1949.11.3., 1~2쪽.

이 책도 본문만 번역되지 않고 번역자의 해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국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의사 나가이의 책을 의사가 번역한 것처럼, 저널리스트 존 허시의 책도 기자인 김종건이 맡아 번역했다. 『역자의 말』에서 번역자는 존 허시의 『廣島』가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시 상공에 터지던 그 순간부터 그후 1년 동안의 경과보고”이자 “이십세기 인공지옥”인 처참한 현지를 전 세계에 최초로 발표한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번역자가 지적한 것처럼 『廣島』는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鐘』처럼 원폭 투하 1년을 다루지만 실질적인 구체적 내용은 1945년 12월, 조금 넓게는 1946년 초까지이다. 나가이 다카시와 존 허시의 차이는 존 허시는 원자폭탄의 피폭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원폭 투하 당시에 허시는 일본에 없었다. 존 허시는 1946년 3월에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3개월 동안 취재를 했다. 나가이의 글이 피폭자의 원폭체험기였다면, 존 허시의 글은 외국인 저널리스트의 현지조사 보고서였다. 존 허시가 3개월 동안 히로시마를 직접 관찰하기는 했지만 1945년 8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의 상황은 현지인의 증언을 수집하여 기록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술증언집의 성격도 일부 있었다. 그래서 책의 구성을 보편 총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증언자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고 마지막 4장은 증언자의 내용에 허시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추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원자폭탄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독자에게 제시했다. 『廣島』는 원폭 생존자의 증언과 기자 존 허시의 취재 자료로 구성된 원폭기록집인 것이다.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존 허시의 책은 뒤늦게 이루어진 취재물이고 피폭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가이의 체험기보다는 원폭 텍스트로서의 위상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가이 한 명의 시선만으로 구성된 『나가사키의 종』과 달리 『히로시마』는 여러 피폭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원폭 피해와 상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廣島』에는 핵심주인공으로 여섯 사람<sup>53)</sup>(젊은 미혼 여사무원, 삼남매를 가진 전쟁미망인, 의사 두 사람,

53) <『廣島』의 등장 피폭자의 피폭 상황>



독일인 천주교 신부, 일본 감리교 목사)이 등장한다. 이들이 존 허시에게 사연을 전한 원폭 생존자들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독일인 클라인 조르게 천주교신부는 다니모토 목사와 후지이 의사와 안면이 있다. 또한 적십자 병원의 사사키 박사는 여직원 사사키 양을 치료해 준 외과의사다. 나카무라 부인도 피난 과정에서 클라인 신부의 도움을 받아 나가쓰카의 천주교 수련원에 피신을 한 인물이다. 이들 6명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도 있고 원폭 이후 피난 과정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다니모토 목사나 클라인 신부는 영어를 할 줄 안다. 독자는 존 허시가 히로시마에 들어가서 증언자를 구할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먼저 찾고 그와 친분이 있는 생존자를 소개받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존 허시의 『廣島』는 나가이를 통해 나가사키 원폭을 접한 한국 독자에게 ‘히로시마’와 원자폭탄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일본에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의 기자라는 점이 독자의 이목을 끌었다. 『廣島』는 가해국 저널리스트의 일본 피폭 취재기인 것이다. 먼저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廣島』를 재구성해 보면, 1장 「소리 없는 불빛」은 주인공 6명이 8월 6일 원자폭탄이 폭발해 피폭당하는 ‘순간’의 상황을 수록하고 있다. 2장 「불(화재)」은 원자폭탄이 폭발한 6일 ‘하루 동안’ 히로시마에 화재가 확산되는 국면과 6명이 처한 상황을 다룬다. 주된

원폭 생존자	직업	피폭 지점	피폭 부상 정도	피폭1년 후 상황
사사키 양	동아 통조림 공장 인사과 직원	폭심지로부 터1.5km	왼쪽 다리 골절	접촉받이, 결혼무산, 불안증, 우울증 심각
나카무라 부인	전쟁미망인 (삼남매의 어머니)	1.2km	방사능 피폭(머리 빠짐, 구토)	가난(생계곤란)
**사사키 박사	적십자 병원 외과의사	1.5km	적십자 병원에서 유일하게 외상 입지 않음, 방사능 피폭만 입음	항상 피곤, 예전만큼 일을 못함
후지이 박사	사실병원 원장	1.4km	왼쪽 쇄골 골절, 갈비뼈 2개 골절, 얼굴과 몸에 화상 등	30개 병실의 개인 병원 잃음
*클라인 조르게 신부	독일인 천주교 사제	1.3km	옆구리 상처, 방사능 피폭, 백혈구 이상 (도료국제성모병원 입원)	전도 활동, 자주 피곤
**다니모토 목사	히로시마 감리교회 목사	3km	교회에서 소개 작업 중 원폭(상처 입지 않음), 입시피폭	교회 폐허

공간적 배경은 1차 피난처인 아사노 공원이다. 3장 『자세한 조사보고』는 ‘6일 밤부터 15일 일본 패전’까지 6명 생존자의 피난과 구호 활동이 제시된다. 4장 『피와 족제비죽』은 8월 18일부터 1946년 봄(넓게는 8월)까지 6명의 생존자가 각자 입은 타격을 수습하고 주어진 현실에 대처해가는 상황이 서사화되었다.

6명 중에서 사사키 양은 왼쪽 다리 골절로 병원을 옮겨 다니고, 나카무라 부인과 세 자녀는 클라인 신부의 도움을 받아 아사노 공원을 거쳐 천주교 수련원으로 피난을 갔으며, 후지이 의사는 부모님 댁과 친구 별장으로 옮겨 가며 요양을 하고, 클라인 신부는 방사능 피폭으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고열과 백혈구 이상으로 도쿄국제성모병원에 두 번 입원하는 등 자주 병증이 도진다. 그래서 『廣島』에서 구호의 주된 인물은 직접 피폭을 당하지 않은 다니모토 목사(아사노 공원에서 부상자 구호)와 외상을 입지 않은 사사키 외과 의사(적십자 병원 환자 치료)이다. 부수적으로 6인 외에 천주교 수련원 원장(의사 출신)이 의약품은 없지만 수련원으로 피난 온 부상자를 치료했다. 이와 같이 원폭 생존자의 증언과 존 허시의 취재 자료로 구성된 『廣島』는 6명의 피폭자가 겪은 원폭체험담과 고생담, 생존기이며 세계 최초로 투하된 히로시마 원폭이 인간에게 미친 실태가 기록된 보고서이다.

‘가해국 미국인 기자’ 존 허시의 『廣島』를 재구성해보면, 출간 당시 한국 독자는 첫 번째 히로시마 원자폭탄 인식과 원자병 인식, 두 번째 과학자의 히로시마 투입과 조사기록, 세 번째 ‘미국인’ 존 허시의 인식과 태도 등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나가이의 책을 접했던 한국 독자는 존 허시의 책을 통해 히로시마인의 대응과 인식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첫 번째와 관련해 먼저 한국 독자는 존 허시의 책을 통해 피폭 당시 히로시마 사람들이 생애 처음으로 대면한 원자폭탄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름은 ‘리틀 보이’(Little Boy, 우라늄235)였다. ‘리틀 보이’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보다는 위력이 약했지만 히로시마는 산지 지형인 나가사키와 달리 완전 평야지대였고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했다. 존 허시에 따르면 당시 원자폭탄의 폭발

로 10만이 즉사 및 치명상을 입었고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sup>54)</sup> 히로시마 이재민들은 원자폭탄을 “비행기에서 뿌린 휘발유, 가연성 가스 혹은 커다란 소이탄 다발, 낙하산병들의 소행”<sup>55)</sup> 등으로 추측했다. 폭발 당일 오후에 ‘검은 비’가 내렸는데, 이 비정상적인 비를 처음 접한 히로시마 사람들은 미국인이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다고 생각했다.<sup>56)</sup> 실제로 히로시마 도시 전체에 화재가 번졌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일본인 신문기자는 폭탄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마그네슘 가루를 살포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sup>57)</sup> 폭탄 투하 일주일 후 히로시마에는 원자폭탄이 신형무기의 정체라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자가 돌로 쪼개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히로시마를 초토화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sup>58)</sup> 희생자는 막연히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라고 짐작할 따름이었다. 이처럼 원자폭탄은 인류가 최초로 개발한 대량살상무기였고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로 실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일본인의 원폭 인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의사 나가이의 책보다 실감이 있고 다양한 인식이 가시화되었다.

이어서 당시 한국 독자는 존 허시의 『廣島』를 통해 원자폭탄이 야기한 ‘원자병’ 증세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에서는 나가이와 나가사키의과대학 의료진이 직접 피폭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증상을 파악했었다. 그래서 『長崎의 鐘』을 읽은 한국 독자라면 『廣島』를 접했을 때 히로시마의과대학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당시 히로시마대학은 문리대 중심대학이고 의대가 없었다. 『廣島』에는 사사키 박사가 있었던 적십자 병원이 가장 좋은 곳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존 허시는 사사키 박사와 적십자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지켜보면서 파악한 원자병의 병증을 정리해 책에 담았다. 재한 원폭 피해자는 나가사키 의료진(나가이, 방사선학)과

54) 존 허시 저, 위의 책, 47쪽.

55) 위의 책, 93쪽.

56) 위의 책, 74쪽.

57) 위의 책, 110쪽.

58) 위의 책, 116쪽.

히로시마 의료진(사사키, 외과)의 원자병 기록을 비교하며 병의 정체를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sup>59)</sup>

존 허시의 책은 한국 독자에게 원자병 환자의 병증과 그 추이가 ‘3단계’<sup>60)</sup>로 진행된다는 지식을 알려주는 기능을 했다. 각 단계별 증상과 환자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고 병의 진행속도와 피폭자의 사망과정이 상세한 만큼 독자는 참혹한 병증과 피폭자의 죽음을 통해서 원자탄의 위력과 실체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원자병, 원폭병, 원폭 환자란 용어도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원폭기록집의 번역으로 원자병이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앞에서 피폭 직후 일본인이 원자탄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듯이, 원자탄 발명에 공헌한 과학자도 “원자탄과 원자관계의 발견은 하도 거창하고 복잡해서 선량의 몇 사람만이 겨우 이해할 수 있는”<sup>61)</sup> 것이며 일반 국민은 “현재 미술사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옛날의 인도인과 같다”고 말했지만, 피폭 피해상의 기록은 원자탄이 치명적인 만큼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비인도적 살상무기라는 대중적 인식을 가능케 했다.

“국제전(國際戰)의 도화선(導火線)을 동족상전(同族相戰)에서 촉진(促進)

59) 다만, 식자층이 아닌 피폭자는 책을 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60) 1단계는 의사들이 새로운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도 전에 진행이 끝나 있었다. 폭발 순간 방출된 중성자와 베타 입자, 감마선에 의한 충격이 희생자에 가해졌다. 폭심지에서 800m 이내 있던 사람의 95%가 이 단계에서 사망했다. 방사선은 간단히 인체 세포를 파괴해 세포핵을 변질 시키고 세포벽을 붕괴시켰다. 즉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며칠간 지속되는 구역질, 두통, 설사, 불쾌감, 고열 등에 시달렸다. 의사들은 이러한 증세가 방사능 때문인지 신경성 쇼크 때문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2단계는 폭발 후 10일 내지 15일이 지나서 시작되었다. 먼저 탈모가 나타났고, 설사와 발열 증세가 이어졌다. 일부는 41도까지 고열이 발생했다. 폭발 후 25일 내지 30일이 지나서는 혈액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피부와 점막에 점상출혈이 생겼다. 백혈구 감소는 환자들의 면역 능력을 저하시켰고 많은 환자들이 인후염과 구내염에 시달렸다. 특히 고열이 지속되거나 백혈구 수치가 1000 이하로 떨어진 환자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다. 3단계는 인체가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오히려 과도하게 증가했다. 많은 환자들이 흉강 감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대부분의 화상은 치유되었으나 붉은 켈로이드가 생겼다. 증세들이 그 정체를 모두 드러내자 다수가 엑스선에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는 나가사키의 나가이 의사가 인식한 것과 상당부분 비슷하다. 의사들은 이 유사성에 기초하여 환자를 치료했다. 위의 책, 139~141쪽.

61) 『여과학자가 본 원자탄의 장래』, 『민성』 2권 13호, 1946.12, 21쪽.

한다면 민족(民族)과 나라가 망(亡)할 것도 무섭거니와 세계(世界)가 전쟁발화(戰爭發火)의 책임(責任)을 우리에게 돌릴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sup>62)</sup>는 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자탄의 위력과 원자병의 심각성, 원자탄 사용의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당시 38선을 경계로 남북분단과 미·소의 대치로 인해 한반도가 세계전장화 되고 원자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결부되면서 반전 의식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그래서 존 허시의 『廣島』를 번역하면서 ‘원자탄의 위력과 원자병의 참상’을 인지한 김종건도 “이 책에서 배우는 것은 이 원자폭탄은 금후로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고 그 사용은 꿈에도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원자폭탄은 모든 전쟁방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영원히 없애고 말았다고 역사는 믿는다.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전쟁이란 결국 누구를 위하는 전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sup>63)</sup>고 말했다.

두 번째, 한국 독자는 ‘과학자의 히로시마 투입과 조사기록’을 인지하게 된다. 존 허시의 『廣島』에는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와 달리 ‘물리학자들’이 등장했다. 『長崎의 鐘』이 의사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조사한 기록이라면, 『廣島』는 세계 최초 원폭을 맞은 히로시마의 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원폭 생존자의 경험 기록 외에도 외부 조사원들의 과학적 조사결과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8월 중순 일본의 물리학자들이 히로시마에 와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시내 중심부 일대를 돌면서 전신주의 그슬린 면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관찰하여 대략적인 폭심지를 정했다. 또한 물리학자들은 섬광에 의해 투사된 그림자 자국이 일부 장소에 양각되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과학자들은 그림자 자국과 투사된 자국을 측량하여 폭심지가 폐허로 변한 시마병원에서 남동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어서 9월 초 과학자들은 폭심지를 기점으로 동서로 방사능을 측정하여 당시 방사능 최고 강도가 자연 누전의 3.9배라는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들어와도 위험하지 않다는 발표를 했다.<sup>64)</sup> 이는 『長崎의 鐘』에서 나

62) 『統一課業의 展望』, 『조선일보』, 1948.9.12., 중간 1쪽.

63) 존 허시 저, 위의 책, 2~3쪽.

가이가 폭심지 우라카미에 살면서 3개월여가 지나 사람들이 살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된다. 과학자들은 특이한 재와 녹아버린 파편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폭심지의 지상에서 원폭이 발하는 열이 6000도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방사능 강도 측정이 이루어져 폭심지에서 3km나 떨어진 교외 지역인 다카스(高須)의 지붕 물받이와 배수관에서도 방사능이 확인되었다.<sup>65)</sup>

이러한 과학자의 연구 성과는 순식간에 일본의 물리학자와 의사, 화학자, 언론인, 교수, 정치인, 군인까지도 다 아는 상식이 되었고 소책자로 만들어져 결국 전 인류의 지식으로 퍼져 나갔다. 그래서 원폭을 기밀로 유지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무산되었다.<sup>66)</sup> 이와 같이 존 허시의 『廣島』는 원폭생존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당시 원자폭탄의 파괴력과 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과학자의 활동과 기록이 적시되어 있고 그들의 조사결과가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화 되어 원폭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환기하고 있다.

다만, 원폭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출현한 이상, 원폭 비보유국 국민에게는 원폭 보유국의 국력의 근간이 되는 핵물리학자 등 과학자의 존재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방 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과학전람회(1949.10.21.~11.8)가 열렸을 때 “현대는 과학시대다. 원자력시대다. 그러나 1945년 미군에 의한 廣島の 원자탄폭격이 있을 때까지 일반인이야 그 누가 원자력의 그다지 壯함을 꿈엔들 상상하였으랴? 오직 각국의 과학자만이 몇 십 년 전부터 이 원자력의 파괴성을 먼저 알고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결과 드디어 미국서 먼저 성공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과학자에게는

64) 위의 책, 121~133쪽.

65) 위의 책, 148쪽.

66) 핵폭탄 투하 직후 미일합동조사단이 조직되어 인체에 대한 살상력을 중심으로 조사 활동을 했다. 미국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후천적 장애, 방사선으로 인한 만발성(晩發性) 영향 연구를 추가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1946년 11월 16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전미과학아카데미·학술회의에 ‘원폭상해조사위원회(ABCC)’ 설치 명령을 내렸고 1947년 1월 발족하게 된다. 존 허시의 『廣島』는 폭발 이후 1년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ABCC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나카가와 야스오, 박찬오 외 역, 『방사선 피폭의 역사』, 무명인, 2020, 53~54쪽.

물심양면의 적극적 원조하여 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점에서 『廣島』를 접한 한국 독자는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에서 얻지 못한 원자폭탄의 정보와 위력의 흔적, 미국의 사후대응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기자 취재물의 장점을 깨달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科學大韓을 위한 과학도의 육성”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었다.<sup>67)</sup>

세 번째, 한국 독자는 ‘미국인’ 존 허시의 인식과 태도를 대면하게 되었다. 『長崎의 鐘』의 서문을 쓴 시키바 류자부로 의학박사가 지적했듯이 『長崎의 鐘』는 일본인의 저작이고 존 허시의 『廣島』는 외국인의 최초의 기록이다. 한국 독자가 『長崎의 鐘』에서 일본인의 시각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廣島』에서는 중립적인 기자이면서 원폭 투하 가해국의 일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힌 존 허시를 발견할 수 있다. 존 허시는 가해국의 일원으로서 죄책감 및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취재가 미국 언론에 보도된다는 점도 반영되어 있다. 그 대신 『廣島』에는 ‘존 허시가 일본인 생존자에게 들은 일본인의 시각’과 ‘존 허시가 체류하면서 목도한 일본 인식’이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인’ 존 허시가 바라본 ‘일본(인) 인식’인 셈이다. 이는 ‘일본의 패전’, ‘외국인 혐오’, ‘원자폭탄 투하 윤리’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저 ‘일본의 패전’과 관련해, 나카무라 부인은 원자폭탄을 겪고도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8월 15일 천황의 라디오 방송이 있었다. 다니모토 목사는 히로시마 철도역에서 천황의 종전조서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일본의 패전에 실망하면서도 천황이 직접 목소리를 들려줘 감동했으며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진심을 다해 천황의 어명을 차분히 따랐다고 말했다.<sup>68)</sup> 패전 상황에서도 천황을 향한 일본 국민의 믿음과 충성심이 얼마나 강고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 한국인이 궁금해 하던 일본 패전의 장면이 원폭기록집에 수록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 혐오’와 관련해,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군의 원

67) 「사설 : 學生과 科學하는 마음」, 『조선일보』, 1949.11.11, 1쪽.

68) 존 허시 저, 위의 책, 119~120쪽.

자폭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히로시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 『廣島』에서 구체적으로 미국 증오를 표출한 인물은 나카무라 부인이다. 그녀는 전쟁미망인으로서 재봉틀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원자폭탄 폭발 당시 집의 방공호에 숨겨놨었다. 그런데 원폭 투하 이후 독성 때문에 7년간 히로시마에서 살 수 없다는 소문이 퍼져 그녀는 재봉틀을 찾으러 갈 수 없었다. 이에 생존을 위협받은 나카무라 부인의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했다.<sup>69)</sup>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해 거주해도 된다는 발표가 이어진 후 미국을 향한 증오심이 누그러졌다. 이에 비해 후지이 박사는 원폭으로 부상을 당하고 개인병원을 잃었으면서도 곧 히로시마 동부 교외지역의 병원을 매입해 정복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영어로 된 간판을 달고 저녁마다 찾아오는 점령군에게 위스키를 대접하며 영어를 연습하고 구사했다.<sup>70)</sup> 그는 한국 소설 「꺼삐딴 리」의 의사 이인국처럼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이었다. 피폭 직후 미국에 대한 일본인의 반미와 친미의 감정이 분화되는 국면이 엿보인다. 그 외 『廣島』에서 독일인 천주교 사제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독일은 일본의 동맹국이어서 사제들은 일본인의 ‘외국인 혐오’나 스파이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국면에서 『廣島』의 저자 존 허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 중군기자였지만, 일본에서 취재하던 자신을 향한 일본인의 반감은 책에 상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원자폭탄 투하 윤리’와 관련해, 의외로 히로시마인 대부분은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에 관한 윤리 문제에 다소 무관심했다. 존 허시가 바라본 그들은 원폭에 대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전시 중 어쩔 수 없었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와 달리 독일인 사제들은 이 윤리적 문제를 두고 토론을 했다. 민간인 인명피해를 근거로 원폭 사용을 비판하는 사제가 있었다. 이에 반해 총력전이어서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전쟁행위를 불평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 사제는 원자폭탄이 유혈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수단으로서 정당했다고 평가했다.<sup>71)</sup> 이러한 논쟁

69) 위의 책, 130쪽.

70) 위의 책, 143쪽.



은 원폭 책임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의 대립구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록은 원폭을 투하한 미국측을 일부 대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허시는 자신의 속내를 책에 직접 드러내지 않고 피폭지역 사람들의 민족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드러내는 글쓰기를 택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49년 한국 독자는 기자 존 허시 『廣島』의 번역으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세계 최초의 원폭의 영향과 원자폭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廣島』에서 피난지는 아사노 공원(폭심지에서 1.5km), 동부연병장(폭심지 2.5km), 천주교 수련원(폭심지 5km)이 나온다. 동부연병장과 수련원은 멀기 때문에 아사노 공원이 중요한 1차 피난처로 거론된다. 2장 『화재』의 공간도 이 공원이다. 천주교 사제도 이 공원을 거쳐 천주교 수련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廣島』의 주된 배경은 부상자가 몰리는 아사노 공원과 적십자 병원이다. 『廣島』에는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생존자 6명의 생존기가 펼쳐진다. 그런데 히로시마는 나카사키와 달리 자연재해까지 겪게 된다. 존 허시는 9월 초순 폭우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고 17일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이 급습하여 오타강 하류에 위치한 히로시마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했다. 이 태풍으로 서쪽 16km 떨어진 곳의 오노 육군병원이 휩쓸려 함몰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당시 병원에는 교토제국대학에서 과전 나온 전문가 일행이 원자병 환자의 예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환자와 함께 그들 대부분이 익사했다.<sup>72)</sup> 히로시마 일본인은 원폭과 태풍, 홍수라는 복합재난을 겪은 셈이다.

그래서 『廣島』를 읽은 한국 독자는 일본인의 원자탄과 원자병 인식, 원자폭탄의 위력, 과학자와 미국의 대응, 존 허시의 일본 인식(일본의 패전, 외국인 혐오, 원자폭탄 투하 윤리)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피해자들이 원폭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태풍과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원폭기록집의 번역은 원자병의 사회적 인식의 토대가 되었

71) 위의 책, 161~163쪽.

72) 위의 책, 129쪽.

다. 원자탄의 파괴력과 원자병의 참상을 직시한 분단 상황의 (한국전쟁 이전) 한국 독자라면 미·소 냉전의 격화에 따른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핵전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폭을 당한 일본인 피폭 생존자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반전·반핵운동을 했다. 이와 같이 원폭 텍스트는 ‘원폭 피해자의 존재’와 원폭 피해의 참혹함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반전의식 강화에 일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 4. 나가며 : 냉전과 원자(핵)전쟁, 원폭 피해자의 존재

한국인에게 원자폭탄이란 무엇인가. 히로시마에 응징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원자폭탄을 맞아 반신불구가 된 사람이 귀국하여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는 기사가 해방 직후 보도된 바 있다.<sup>73)</sup>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한 피폭자에 관심이 없었다. 이들에 대한 기사가 사실상 전무하다. 원자병, 원폭병, 원폭 환자란 용어도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의 본토에서 직접 폭탄을 경험하지 않았고 원폭의 방사능에 의한 피해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원자병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도 했다. 단지 원자폭탄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미국의 신형무기로서 고마운 ‘선물’이었다. 하지만 1948년 남북이 분단되고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했으며 중국은 공산당이 내전에 승리하여 공산국가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다. 다시 말해 1949년은 유럽과 동아시아에 걸쳐 냉전의 전선이 구축되던 시점이었고 원폭을 이용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국에 1949년 일본에서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の鐘』이 출간되고 존 허시의 『Hiroshima』도 번역되었으며, 동년 9월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이 개설했다.<sup>74)</sup> 한국에서도 동년 두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73) 『應徴士の 生活對策』, 『조선일보』, 1945.11.28., 조간 1쪽.

74) 이치바 준코, 이제수 역,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2003, 330쪽.

이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의 사회화 작업이 이루어져 일본과 한국에 원폭의 정보가 좀 더 알려지고 역사적 기억으로 계승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sup>75)</sup> 두 책의 번역으로 원자탄의 위력과 원자병 위험이 인식되고 막연했던 원자탄 공포가 현실화하면서 한국인에게 원자폭탄이 ‘해방의 선물’이 아니라 적국에 의한 대량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의 근거가 되었다. 두 책의 번역으로 미약하지만 한국에서도 ‘원자병’과 ‘인류절멸의 공포’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한 원폭 피해자’의 존재가 일부 가시화되었다.

그래서 원폭서사 『長崎의 鐘』과 『廣島』는 새로운 ‘원자 시대’의 평화를 위한 반전(反戰) 텍스트가 될 수 있었다. 한국 독자는 『長崎의 鐘』과 『廣島』를 통해 ‘원자(핵)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폭탄은 전쟁방식을 완전히 바꿨지만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대량살상무기이기도 했다. 인류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원자에너지의 사용이 갖는 윤리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廣島』는 존 허시가 저널리스트로서 히로시마 피해상을 기록한 것이어서 원자력에 대한 평가나 전망이 없다. 이는 그가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윤리적 평가를 피한 측면도 있다. 이와 달리 『長崎의 鐘』에는 의사이자 과학도로서 나가이의 전망이 담겨 있다. 그는 원자폭탄에 의한 전쟁은 종말을 의미하지만 생활을 위한 다양한 원자력에너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1949년 11월 비신스키 소련외상은 UN총회특별정치위원회에서 미국이 과거 廣島·長崎에 원자탄을 투하한 것을 비난하는 한편 소련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무한대라고 발언했다.<sup>76)</sup>

75) 나가이 다카시의 『長崎의 鐘』(1949)은 『그날, 나가사키에 무슨 일이 있었나』(2011), 『나가사키의 종』(2021) 등으로 번역되었고, 존 허시의 Hiroshima(1946)는 『廣島』(1949), 『히로시마의悲劇』, 『美國戰後問題作品集』(1960, 신구문화사), 『히로시마의 증인들』(1986), 『다큐멘터리 히로시마 : 6인의 증언, 그리고 40년 후』(2004), 『1945 히로시마』(2015) 등으로 번역되었다. 특히 존 허시는 40년 후 다시 히로시마를 방문해 과거 인터뷰했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들의 삶을 조명했다. 1980년대 세계적으로 반핵운동이 활발해질 때 존 허시의 과거 책과 새로운 작업의 결과물이 반핵에 일조한 것이다.

76) 『對日原子彈投下 非外相間接非難』, 『조선일보』, 1949.11.15, 1쪽.

결론적으로 두 원폭서사가 번역되고 원폭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1949년은 ‘원자폭탄(핵무기)’이 극단적 이념갈등과 체제경쟁이 지배하는 냉전시대 지구의 국가간 공존과 적대의 관계를 결정짓는 상징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면서 원자폭탄은 군사력과 과학수준, 국력을 상징하면서도 반전과 평화의 핵심 근거가 된다. 이러한 원자폭탄의 위험에도 원자력에너지는 이미 지구상에 발견되어 이용되었다. ‘핵에너지가 원자폭탄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원자력발전소처럼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괜찮다’는 논리와 인식이 이 무렵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두 원폭 텍스트는 이러한 당대적 맥락에서 소비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국인과 이해관계가 깊고 직접 원폭을 체험한 일본인의 텍스트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다만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長崎의 鐘』과 『廣島』의 아쉬운 점이라면 제일조선인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원폭피해자(독일인 사제 제외)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책이 1949년 한국에 번역되었어도 재한 원폭 피해자는 여전히 소외된 존재였다.

##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민성』, 『서울신문』, 『신천지』, 『조선일보』

### 1. 저서

- 永井隆 著, 李承澤 譯, 『長崎의 鐘 : 原子彈에 맞고서』, 三一出版社, 1949.
- 나가이 다카시, 김재일 역, 『그날, 나가사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섬, 2011.
- \_\_\_\_\_, 박정임 역, 『나가사키의 증』, 페이퍼로드, 2021.
- 나카가와 아스오, 박찬오 외 역, 『방사선 피폭의 역사』, 무명인, 2020.
- 朴秀馥,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創元社.
- 이치바 준코, 이제수 역,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2003.
- 임지현,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휴머니스트, 2021.
- 정근식 편, 진주 채록,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05.
- 정육식 · 강정민, 『핵무기』, 열린길, 2008.
-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문제연구소, 2014.
- 존 루이스 개디스, 정철 · 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2010.
- 존 허시 著, 崔惠一 譯, 『히로시마』, 正音社, 1949.
- \_\_\_\_\_, 金鍾健 譯, 『廣島』, 經緯社, 1949.
- 토니 주트, 조행복 역, 『전후유럽 1945~2005』 1, 열린책들, 2019.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 John Hersey, Hiroshima, New York : A. A. Knopf, 1946.
- John Hersey, 石川欣一 · 谷本清 共譯, 『ヒロシマ』, 東京 : 法政大學出版局, 1949.
- 金子敦郎, 『核と反核の70年』, リベルタ, 2015.

### 2. 논문

- 공임순,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 종전과 전후, 한반도 해방(자유)의 조건들』, 『서강인문논총』 제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8.
- \_\_\_\_\_, 『원자탄과 스파이, 전후 세계상의 두 표상 : 보이지 않는 중심과 관리(통제)되는 양심/내면의 지도』, 『민족문화사연구』 48권 0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 권보드래, 『과학의 영도(零度), 원자탄과 전쟁 : 원형의 전설』과 『시대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3호, 2012.
- 이필렬, 『한반도에서 원자력이 지닌 해방자-구원자 이미지와 그 결과들』, 『동방학지』 166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4.
- 이행선, 『단정기, '스파이 정치'와 반공주의 - 학살의 前史』, 『대동문화연구』 9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6.

## The Cold War and Soviet Nuclear Testing(1949), A Translation of ‘The Story of Atomic Bomb Damage’

—Takashi Nagai's *The Bells of Nagasaki* and John Hersey's *Hiroshima*—

Lee, haeng-seon\*

Takashi Nagai's 『長崎の鐘』 and 『Hiroshima』 by John Hersey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 in 1949. Nagai's book was translated into 『長崎의 鐘』 on August 1, and John Hersey's book was published as 『廣島』 on November 3. The two books were atomic bomb storyline about the fear of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in August 1945. In 1949, when the two texts were translated, Germany was divided into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succeeded in experimenting with atomic bomb development. In addition, China's Communist Party won the civil war and buil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ssacres by public power, such as the Jeju April 3rd Incident and the Yeosu-Suncheon Incident, were also intensifying anti-North Korean sentiment and hate politics in Korea. In this phase, the Soviet Union's development of atomic bombs realized the concerns and fears of World War III and the atomic(nuclear) war. In short, the paper attempted to reveal the message and meaning of the translation of the two texts dealing with atomic bombs to Korean society at a time when the Soviet Union developed atomic bombs and concerns over war outbreaks and escalated

---

\* Assistant Professor of Kookmin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inter-Korean conflicts.

**Key words:** Cold War, Atomic Bomb, *The Bells of Nagasaki*, bestseller, *Hiroshima*